

인터넷 채팅 이용 경험과 대인관계 수준이 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 문 수*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대우전임강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확대 보급에 힘입어 인간 커뮤니케이션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덕분에 사람들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문자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컴퓨터 통신 세계에는 통신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하위집단 언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흔히 통신어, 외계어 등으로 불리는 이들 언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를 언어 파괴로 규정하고 다른 편에서는 이를 이용자들의 개성있는 표현이라고 반론을 내세운다. 하지만, 정작 왜 이런 언어사용 행위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화 적응 이론을 적용하여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한편,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인터넷 채팅 이용자들 사이에 대화 적응 현상이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는 34명의 대학생들이 인터넷 채팅 실험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체를 조작하였고, 상대방의 언어체도 이에 따라서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인터넷 채팅 이용경험이 높은 참여자일수록 상대방의 대화 적응을 더 많이 유도했고, 참여자들의 대인관계 수준이 친밀할수록 대화 적응 현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Key Words: 인터넷 채팅, 대인 관계, 대화 적응이론, 통신어

* philew@postech.ac.kr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확대 보급에 힘입어 인간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덕분에 사람들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동호회나 사이버 카페, 팬클럽, 사고 포털 사이트 등에는 거의 대부분 회원들이 서로 온라인 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방이나 온라인 쪽지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문자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컴퓨터 통신 세계에는 통신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하위집단 언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인터넷 채팅 에서 사용되는 이런 하위 집단 언어를 통신어, 외계어라고 부르는데 통신어는 통신인들 사이에 사용되는 은어, 약어, 특정한 어투의 표현방식을 말하며, 외계어란 한글 자모를 영어, 수식기호, 외국어 문자, 도형문자 등으로 대체한 것¹⁾을 말한다.

기존의 표준화된 문법과 맞춤법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기법과 문체, 조어법을 사용하는 통신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은 물론 학생들의 일기, 독후감, 시험답안지, 구직자의 자기소개서에까지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경향신문, 2003. 10. 9; 한국일보, 2005. 1. 14). 이에 국문 학자와 국어 교사, 학부모들은 통신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교육부에서는 인터넷 언어 순화를 위한 지도 자료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언어 5계명²⁾을 제시하는 한편, 학교 어문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지만(한국일보, 2005. 1. 11),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통신어를 둘러싼 입장도 다양한데, 일부에서는 통신어 사용에 대하여 기존 언어의 통일성을 해치는 언어 파괴행위로 규정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이를 이용자들의 개성있고 창조적인 표현으로 보거나 통신 세계에서 통용되는 하위 집단 문화로 인정하자고 한다.

1)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를 ‘0y0ㅎㅎ비시Hㅎㅎ’로 적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 언어 5계명은 ‘가능한 한 문법 지키기, 인터넷 언어는 사이버 공간에서만 쓰기, 외계어는 삼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하기, 문법 파괴 용어 사용하지 않기, 채팅에서 이모티콘은 적절한 정도로 쓰기’이다.

이처럼 통신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신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대부분 통신어의 형태적 구조를 설명하고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김현정, 2004; 정진수, 2003), 통신언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범적 평가를 내리는 입장(권연정, 2004; 이호영, 2004)에 치우쳐 있다. 말하자면, 통신어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으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사람들이 왜 인터넷 채팅 상황에서 통신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동기나 이미 학습한 통신어를 왜 어떤 경우에는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채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컴퓨터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통신어를 알고 있으며, 여러 가지 통신어체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채팅 이용자들이 통신어를 안다고 해서 채팅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통신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왜 사람들은 표준어와 통신어를 모두 익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신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인터넷 채팅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채팅을 연구함에 있어서 대화 상대방과 그의 반응을 배제하고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채팅에서 특정한 언어 스타일이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대화 참여자의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대화 참여자와의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언어학 분야의 대화 적응 이론을 도입하여 한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 스타일이 상대방의 언어 스타일 채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통신어에 대한 연구

(1) 통신어의 특징

컴퓨터 통신 언어는 대화자의 말(spoken language)을 글(written language)

로 옮겨 놓은 것이다. 즉, 컴퓨터 통신 언어는 내용상으로는 구어에 해당하지만, 표현형식과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현정(2004)은 통신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신언어가 시각적인 매체를 통하여 의사교환을 한다는 점에서는 문자언어의 특징을 지니지만, 구체적인 전달 상황이냐 의사 교환 과정에서는 음성언어의 특징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대규(1996, pp.21~38)는 구술언어와 문자언어의 차이점을 정리하면서, “구어는 다양성, 즉각성, 친교성, 표현성, 구체성, 포합성, 순간성, 동태성, 모호성, 비논리성, 비격식성, 상황의존성을 지니며, 문어는 단순성, 계획성, 제보성, 서술성, 추상성, 분리성, 영구성, 정태성, 명시성, 논리성, 격식성, 문맥 의존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것은 문자 언어는 정태적이고, 통일된 문법체계의 지배를 받지만, 구술언어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개별 발화자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발화규칙과 격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통신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평가는 대부분 통신어를 문자 언어로 규정하고, 통신어에 대해 문어의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통신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속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세계에서 왜 것처럼 다양한 변형 언어들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어는 글의 형태로 표출이 되지만 그것은 발화자의 음성을 가시화된 형태의 문자로 고착화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는 음성 언어가 갖고 있는 다양하고, 친교적이며, 동적이며, 격식에서 벗어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글은 표준화된 문법에 의해 통일성이 유지되며, 이용자들이 그 사용규칙을 학습하고 준수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통일된 형태로 표현된다. 하지만, 음성언어는 개인별로 발화 형태가 다양하며, 상황에 맞는 발화 규칙은 대개 공동체의 관습이나 사회적 약속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이러한 발화 규칙이나 다양한 표현 방법들은 역동적인 대화 과정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학습된다. 예를 들자면, 모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아햏햏’이라는 새로운 단어나 이 단어에 대한 사용법, “~하오”라는 종결형 어체도 그 공동체 내에서 누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통신인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이처럼 통신어는 사람들이 문법과 맞춤법을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구술 언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 변형 중 하나이며, 통신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흉내 내고 따라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런 언어 관습에 동화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신어가 맞춤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논쟁이나 체계적인 한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왜 사람들이 그런 통신어를 배우게 되는가와 표준어와 통신어를 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왜 통신어를 사용하게 되는가에 연구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2) 통신어의 형성과 사용 원인

권연정(2004)은 사람들이 통신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경제성,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매체적 특성에서 찾는다. 첫째로,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통신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곧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약어 및 생략형 사용(서울 → 설, 초등학교 → 초딩), 소리 나는 대로 적기(살아요 → 사라여, 괜찮아요 → 꽤아나여), 틀린 글자 수정 않고 전송하기 등으로 통신어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 컴퓨터와 모뎀, 전화선을 이용하던 PC 통신시절과는 달리 초고속 인터넷 회선이 널리 보급되어 있고, 정액요금제가 일반화된 요즘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한글 자모 풀어쓰기 (ㅅㅏㄹㅏㅇㅎㅏ) 현상이나 복잡한 외국자모, 수학부호 등을 이용한 외계어 사용(이별이란게 → ØℓℓØℓℓℓℓℓℓ) 현상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둘째로 심리적 요인이란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이 채팅을 하는 목적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친교를 나누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표현을 자유롭게 만들어 쓰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이종화(2002)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통신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편하고 재미있어서', 33%가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이 주장은 이용자가 특정 언어체를 선택하는 동기를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을 하지만, 대화가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를 생각할 때 그런 심리적 동기가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설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사회적인 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통신어를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의 사회적 산물로 보는 입장이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에 의해 형성되며, 또한 사람들은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의 문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언어 형식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신조어를 만들어 공유하기도 한다. 이것은 그들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이런 언어를 승인하느냐 않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Chong(2000)은 통신어를 특정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방언(social dialect)으로 보기도 한다.

인터넷 동호회나 팬클럽 등에서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거나 자기들만의 문화를 표현하기 위해 이런 방언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부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에서는 해당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나영체, 근영체, 수정체, 태희체³⁾ 등과 같은 어체가 사용되며(스포츠조선, 2004. 12. 5),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에서는 그들만의 약어와 은어⁴⁾가 통용된다(오마이뉴스, 2005. 3. 31). 만약 그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통신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해당 공동체의 성원으로 적응하고 공동체 내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언어 사용 규범에 동조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매체적인 면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음성의 강약이나 억양, 표정, 몸짓, 자세 등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가 차단되고 문자에 의해서만 정보가 전달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기법을 찾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확실히 통신어에는 다양한 어감과 생동감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채팅을 하면 무작정 통신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상황이지만 때로는 통신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즉, 컴퓨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매체 환경이 통신어가 나타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사람들이 통신어를 사용하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

3) 이는 인기 텔런트 문근영, 이나영, 임수정, 김태희의 열성팬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들로, 문장말미를 각각 나영, 근영, 수정(또는 정), 태희 등으로 변형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종근영~ 역시 이쁘근영”, “우리 나영 즐거웠나영”, “우리 수정 최고정”, “나는 밥 먹으러 갈태희야” 등과 같은 표현이다.

4)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서는 공원몰(인터넷파크), 추메(추가 메모리), 각개(날개 판매), 핵핼(해킹으로 각종 기능제한을 풀어버린 펌웨어), 지름(사고 싶은 물건들 기어이 사고야 맘) 등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다.

럽다.

이상의 논의에서는 기존의 컴퓨터 통신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통신어가 사용되는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통신어가 사용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채팅이라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과 대화 참여자 쌍방의 대인관계를 배제하고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사회 언어학의 입장에서 통신언어가 사용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화 적응 이론(Speech Accommodation Theory)

대화 적응 이론(speech accommodation theory)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동안 자신의 대화 스타일(speech style)을 변화시키는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이다(Beebe & Giles, 1984). 여기서 적응(accommodation)이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대화체나 표현 습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Giles et al., 1977).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A가 B를 많이 닮게 될수록 B가 A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유사성(similarity)과 매력(attraction)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대화 스타일(어투, 강세, 억양, 속도, 반응 지연시간 등)을 닮게 되는 이유가 사회적인 인정(social approval)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치원 교사가 자신의 수준을 낮추어서 아이들이 쓰는 말투를 쓰는 것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며, 학술 발표회에 참석한 사람이 근엄하고 진지한 태도로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표준어로 또박또박 말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언어 사용 규범에 동조함으로써 그 구성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화 적응 현상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관찰하면 잘 드러나는데 적응이 일어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여기에는 발화의 길이, 말하는 속도, 정보의 밀도, 강세, 쉬는 빈도와 길이, 반응 지연시간, 자기 개방의 정도, 고개 끄덕임, 표정, 자세 등이 포함된다. Bunz와

Campbell(2002)은 전자 우편 메시지에서 송신자가 특정 수준의 공손한 표현을 사용할 때 수신자의 답장에도 이와 같은 정도의 공손한 표현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전자우편 답장에 나타난 공손 표현은 처음에 송신자가 사용한 공손 표현의 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전자우편을 통해 상호작용을 할 때 공손 표현에 있어서도 대화 적응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대화 적응 이론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 개념은 수렴(convergence)과 일탈(divergence)이다. 수렴이란 개인이 상대방의 대화 스타일에 순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Giles(1973)은 처음으로 대화 적응 이론을 소개하면서, 인터뷰 상황에서 응답자들이 조사자의 액센트를 따라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적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였다. 반면에 일탈이란 자신의 대화 스타일을 상대방과의 차별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Bourhis와 Giles(1977)는 웨일즈계 사람들에게 영국식 발음으로 질문을 하면 그들은 이것을 웨일즈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웨일즈 식 발음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일탈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Giles 등(1987)에 의하면, 대화 수렴 현상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즉, 수렴이란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소개하는 연구들에 의하면, 말하는 속도, 반응 지연시간, 언어, 강세 등에서 유사성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사회적 매력을 느끼게 되며(Street, Brady & Putnam, 1983),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Giles & Smith, 1979), 온정을 느끼게 되며(Welkowitz & Kuc, 1973), 상대방으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있게 된다(Feldman, 1968)고 한다.

인터넷 채팅에서 사용되는 통신어는 이용자가 실시간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법을 배우고 거기에 동화된다는 점, 그리고, 채팅에서 한 개인의 언어 스타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화 상황과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화 적응 이론은 본 연구에 적합한 이론적 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표준어도 알고 있고, 통신어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인터넷 채팅에서 통신어를 사용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물론 통신어의 사용을 이용자의 개인적인 속성이나 자질, 습관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채팅

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사회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사람들이 통신어를 안다고 해서 채팅만 하면 무조건 통신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특정한 언어 스타일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은 대단히 역동적이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간단히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사람들은 왜 인터넷 채팅 상황에서 통신어를 사용하게 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대화 적응 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대화 적응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대화 참여자의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사회 인구학적 요인과 대인적 매력이나 상대방의 인정에 대한 욕구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 대화 상대방과의 권력 관계, 관계에 대한 지속의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등 많은 요인들이 동시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온라인 대화 상황에서는 많은 사회적 맥락 단서들(social context cues)이 차단되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변인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우선, 인터넷 채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와는 달리 이용자 개인의 축적된 채팅 이용 경험에 따라서, 대화 상대방을 다루고 배려하는 수준, 화제를 꺼내고 전환하는 능력,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주도권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이런 차이는 결국 대화 상대방에게 그대로 작용하여 그에 대한 매력이나 대화에 대한 몰입, 대화 분위기에 대한 동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의 채팅 이용 경험을 대화 적응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다음으로, 대화 적응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친해지고자 하는 사람, 앞으로도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언어 스타일에 순응하는 수렴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 할 때와 이미 대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친한 친구와 이야기할 때에는 대화 적응의 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대인관계라는 사회적 요인 역시 대화 적응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앞서 살펴본 대화 적응 이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인 실험 연구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대화 참여자의 채팅 이용경험이 많을수록 대화 수렴이 잘 일어날 것이다.

가설 2: 대화 참여자들의 대인관계 수준이 친밀할수록 대화 수렴이 잘 일어날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연구의 개관

본 연구는 인터넷 채팅 이용 경험과 대인 관계 수준이 참여자의 대화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설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실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인터넷 채팅에 참여할 실험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본 실험이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는 대화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각자 두 번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타인과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참여자들에게는 각기 두 번의 채팅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번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과, 또 한 번은 이미 대인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실험 참여자들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언어 스타일을 표준어 → 통신어 → 표준어 → 통신어로 바꾸거나 혹은 통신어 → 표준어 → 통신어 → 표준어와 같이 3회에 걸쳐 바꾸도록 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모두 갈무리되어 실험 참여자들이 언어 사용 스타일을 바꿈에 따라 상대방도 역시 언어 사용 스타일을 바꾸는지, 즉 대화 적응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 적응 현상은 인터넷 이용 경험과 대인관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2) 실험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들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물론 표집오차를 줄이고,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선 표집 방식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 채팅을 주로 사용하는 집단은 20대 초, 중반의 대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실험연구 참여자로 채택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참여자들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이나 생활양식, 문화적 환경 등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연령과 지적 수준, 생활환경 등이 동질적인 한동대학교 언론정보학 전공 선택과목 수강자들 중에서 34명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3) 실험 통제

본 실험 연구는 정태적인 게시판 메시지 내용분석과는 달리 역동적인 실시간 대화 과정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가외 변인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있다. 실시간 대화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통제하였다.

우선 실험 참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시간은 10분으로 한정하였다. 대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세 차례에 걸쳐 언어체를 변화시키기가 힘들고, 대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동안 대화자들 사이에 호감이 생기거나 대인관계가 형성되어 두 종류의 대화 집단(낯선 사람 / 친한 친구)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대화 주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외적으로 엄격하게 구조화시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와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는 대화 도입부와 대화 전개과정 자체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불쑥 특정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대화 참여자에 대한 호감이나 적대감, 대인적 매력, 친밀감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키, 몸무게, 외모 등에 대한 언급은 피하도록 했고, 자칫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정치 문제, 종교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도 회피하고, 자신의 최근 근황과 일상적인 생활 이야기를 화제거리로 삼도록 했다.

본 실험과 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한 가지는 실험 참여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이는 실험 참여자가 얼마나 상대방의 말에 대해 잘 대응하며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변인으로 연구에 포함시켰다. 인터넷 채팅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터넷 상의 대화 규약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방과 온라인 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독립변인으로 삼았다.

4) 코딩 절차

실험 참여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은 모두 갈무리 되어 파일로 저장되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두 명의 훈련된 평가자들(coders)이 각각의 대화에서 대화 적응 현상이 몇 차례 나타났는지를 각기 계수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이 체계적으로 조작한 언어체는 네 번에 걸쳐 나타나지만 최초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우연히 같은 언어체를 구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실험 참여자가 한 언어체에서 다른 언어체로 바꾸었을 때 상대방이 따라서 언어체를 바꾼 경우만 계수에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대화 적응 수준은 최소값 0점에서 최대값 3점의 분포를 갖는다.

5) 자료 분석 방법

이상의 실험 과정과 코딩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일차적으로는 실험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속성과 주요 변인들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치를 산출하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t 검증을 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4. 연구 결과

1) 측정 자료의 검토 결과

(1) 측정 자료의 신뢰도 검토

본 실험을 통해 수집한 인터넷 채팅 참여자들의 대화 내용 파일을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되는 것을 막고자 2명의 평가자(coder)들로 하여금 각각의 대화에서 언어 적응 현상이 몇 회씩 나타나는지를 각기 계수하도록 하였다.

평가자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inter-coder correlation coefficient)는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로 구하였는데, 평가자들의 상관관계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각각 .89 ($p < .01$), .86($p < .01$)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자들의 판정은 대체로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2) 실험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속성

본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남자 15명, 여자 19명으로 모두 34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25세 정도였으며, 하루 평균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은 약 2시간 40분, 채팅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약 23분 정도였다. 실험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속성에 대해 상세한 것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실험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속성

성 별	사례수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남 자	15	연 령	24.88	1.85
여 자	19	인터넷 이용시간/일	2.69	1.56
계	34	채팅 시간/일	.38	.33

2) 가설 1의 검증결과

가설 1은 대화 참여자의 채팅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대화 수렴이 잘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전체 집단을 하루 중 채팅 이용 시간이 평균 이상인 집단과 평균 이하인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 두 집단 사이에 대화 적응 현상에 차이가 있는지 t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2> 채팅 이용경험에 따른 대화 수렴 수준의 차이 (낮선 사람)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높은 이용경험	11	.73	.64	1.46	22	.080
낮은 이용경험	13	.38	.50			

주: 참여자가 인터넷 이용 및 채팅 시간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사례는 제외되었음

먼저 '낮선 사람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 참여자가 채팅 이용 경험이 많은 경우(M=.73), 채팅 이용 경험이 낮은 참여자(M=.38)에 비해 상대방의 대화 수렴 수준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의 평균치를 t 검증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비록 평균치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차이는 <표 2>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친한 친구와의 대화'한 경우를 살펴보자. 실험 참여자가 채팅 이용 경험이 많을 경우 대화 수렴 수준의 평균치는 1.91로, 채팅 이용 경험이 낮은 경우의 평균치 1.38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치 차이를 t 검증을 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의 평균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 = 1.90, p < .05$).

<표 3> 채팅 이용 경험에 따른 대화 수렴 수준의 차이 (친한 친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높은 이용경험	11	1.91	.70	1.90	22	.035
낮은 이용경험	13	1.38	.65			

이상의 분석 결과를 놓고 볼 때,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채팅 이용 경험이 높은 참여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 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며, 대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매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화 상대방은 보다 쉽게 그의 대화 스타일에 적응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낯선 사람과의 대화’ 경우에는 첫 만남에서 오는 어색함 때문인지 낯선 사람에 대해 거리감과 격식 때문인지 쉽게 상대방의 대화 스타일에 수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 2의 검증결과

가설 2에서는 대화 참여자 사이의 대인 관계 수준이 친밀할수록 대화 수렴 현상이 더 잘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 관계의 수준을 ‘낯선 사람’과 ‘친한 친구’ 두 가지로 차별화하고 이에 대해 한 개인이 두 부류의 사람과 각각 대화한 자료를 토대로 대화 수렴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의 집단간 평균치 차이 분석과는 달리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대화 수렴 현상은 대화 상대방과의 대인관계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낯선 사람인 경우($M = .56, SD = .61$)보다 친한 친구인 경우($M = 1.62, SD = .77$) 더 높게 나타났다. 대응표본 t 검증의 결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t = -8.39, p < .01$).

<표 4> 대인관계 수준에 따른 대화 수렴 차이 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낯선 사람	34	.56	.61	-8.39	33	.00
친한 친구		1.62	.7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는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대화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의 대인 관계 수준이 대화 적응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대화 적응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친밀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수록 상대방이 사용하는 표현이나 말투를 닮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사람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표준어를 학습했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도 다양한 통신어와 통신어체를 습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화 상황이나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통신어를 남발하지는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통신어로 대화하는 인터넷 카페나 대화방에 들어가서 혼자만 표준어를 고집하는 일도 드물 것이다. 즉, 통신어의 사용 여부는 대화 참여자의 대인 관계 수준과 그들 중 누군가가 대화 도중 통신어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화 적응 이론은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인터넷 채팅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타인의 언어 스타일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5.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 채팅의 보급과 함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통신어 사용 문제를 연구 소재로 삼았다. 인터넷 채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컴퓨터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그들만의 하위 집단 언어인 통신어를 알고 있으며, 통신어체의 표현방법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채팅 이용자들이 통신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대화방에만 들어가면 항상 통신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왜 사람들은 표준어와 통신어를 모두 익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신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을까?

인터넷 채팅 및 채팅 언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통신어 사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으나 하는 규범적인 논의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통신어가 구체적인 대화 상황에서 왜 발화가 되는지 혹은 왜 발화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채팅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 상호작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화 적응 이론의 입장에서 한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언어체가 상대방의 언어와 언어체 및 대화 상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가지 가설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대화 참여자의 채팅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대화 수렴이 잘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 1은 입증되었다. 비록 '낯선 사람과의 대화 상황'에서는 채팅 이용 경험이 높은 참여자와 채팅 이용 경험이 낮은 참여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채팅 이용 경험이 높은 이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상대방의 대화 수렴을 보다 잘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터넷 채팅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분위기를 맞추어 주며, 화제를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며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매끄럽게 이끌어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대화를 전개해가면 상대방은 자연히 그가 이끄는 대화의 흐름과 분위기에 쉽게 적응하여 상대방의 언어 사용 스타일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즉, 대화 참여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대화 적응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대화 참여자 사이의 대인 관계 수준이 친밀할수록 대화 수렴 현상이 더 잘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 2도 입증이 되었다. 연구 결과, 실험 참여자들이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보다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 더 높은 대화 수렴 현상을 보였다. 이는 대인 관계의 수준이 상대방의 언어 사용 스타일을 본받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 적응 이론에 의하면 상대방과의 이해를 증진시키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 적응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연히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보다는 이미 대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수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오늘날 인터넷 통신언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통신어 남용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통신어 사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나 규범적인 평가보다도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통신어가 사용되는지, 왜 인터넷 채팅 이용자들은 통신어를 사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대부분의 인터넷 채팅 이용자들은 통신어를 체계적인 교육이나 전수 과정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이는 인간의 언어 사용 행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대화 참여자가 서로의 언어 사용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화 적응 이론의 입장에도 잘 조화를 이룬다. 사회 일각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어 사용이 우리말의 문법과 어법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문법과 맞춤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그와 같은 강제 규범이나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서 보다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적합한 단어와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때 건전한 컴퓨터 통신언어 문화 정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채팅에서 나타나는 통신어 사용 현상을 대화 적응 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험 연구를 통하여 대화 참여자의 인터넷 이용 경험과 대인관계 수준이 대화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지만, 본 연구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 방식을 채택했지만, 대화의 주제나 대화 전개 과정을 정밀하게 구조화시키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실험 참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체계적으로 통제하여 각 대화 사례들이 비교적 동질적인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로, 본 연구자는 실험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속성이나 인터넷 이용 경험, 채팅 이용 정도 등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만, 그들의 대화 상대가 된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대화가 쌍방향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화 적응 현상이 일어나는 보다 다양한 조건들과 수렴(convergence)대신 일탈(divergence)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연정 (2004). 통신언어가 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지도방안. 상명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진각 (2005. 1. 11). 인터넷 언어 무슨 말인지. 『한국일보』, 10.
- 김현정 (2004). 통신언어에 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대규 (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서울: 국학자료원.
- 유병률 (2005. 1. 14). 입사지원서에 채팅용어·이모티콘. 『한국일보』, 7.
- 이인우 (2005. 3. 31). 은어로 엿보는 디지털 카메라의 세상. 『OhMyNews』, [on-line]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menu=c10200&no=218371&rel_no=1
- 이종화 (2002).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통신언어 고찰: 2002년 서울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영 (2004). 일상언어에 통신언어가 미친 영향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순 (2004. 12. 5). 근영체-나영체-수정체 등 독특한 어체 신조어 유행. 『스포츠 조선』. [Online]. Available: <http://www.sportschosun.com/news/news.htm?name=/news/life/200412/20041206/4cf23103.htm>
- 정진수 (2003). 컴퓨터 통신언어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운찬 (2003. 10. 9). 뒤틀린 통신언어 망가지는 우리글. 『경향신문』, 8.
- Beebe, L. M. & H. Giles (1984). Speech accommodation theories: A discussion in terms of second-language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46, 5~32.
- Bourhis, R. Y. & H. Giles (1977). The language of intergroup distinctiveness. In H. Giles (Ed.), *Language, Ethnicity, and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119~135.
- Bunz, U. & S. W. Campbell (2002). Accommodating politeness indicators in personal electronic mail messages.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of Internet Researcher's 3rd Annual Conference, Maastricht, The Netherlands, October, 2002.
- Chong, L. D. (2000). Cybernoms as a sociolect. 한국 사회언어학회 2000년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문.
- Feldman, R. (1968). Response to compatriots and foreigners who seek assis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202~214.
- Giles, H. (1973). Accent mobility: A model and some data. *Anthropological Linguistics*, 15, 87~105.

- Giles, H. & P. M. Smith (1979). Accommodation theory: Optimal levels of convergence. In H. Giles and R. St. Clair (Eds.),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45~65.
- Giles, H., R. Y. Bourhis & D. M. Taylor (1977). Towards a theory of language in ethnic group relations. In H. Giles (ed.) *Language, Ethnicity and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307~344.
- Giles, H., N. Coupland & J. Coupland (1991). Accommodation Theory: Communication, Context, and Consequence. In H. Giles, N. Coupland & J. Coupland (eds.), *Contexts of Accommodation: Developments in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es, H., A. Mulac, J. Bradac & P. Johnson (1987). Speech accommodation theory: The first decade and beyond. In M. L. McLaughlin (Ed.), *Communication Yearbook*, 10. Beverly Hills, CA: Sage, 13~48.
- Street, R. Jr., R. Brady & W. Putnam (1983). The influence of speech rate stereotypes and rate similarity on listener's evaluations of speaker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 37~56.
- Welkowitz, J. & M. Kuc (1973). Inter-relationships among warmth, genuineness, empathy and temporal speech patterns in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472~473.

The Effects of Internet Chatting Cap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Speech Accommodation

Moon-Soo Kim

Lecturer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y people talk 'chatting language' during internet chatting. The chatting language is out of orthographical rules, a kinds of language varieties, and semi-spoken language. As a social dialect which are spoken in the cyberspace, it is learned and used through dynamic and real-time social interaction. Thus, the motivation for using chatting language can be easily explained by speech accommodation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internet chatting cap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speech accommodation. In this experimental study, 34 subjects were participated in online chatting, once with strangers and next time their own friend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internet chatting capability, the more speech accommodation, and the more familiar relationship, the more speech accommodation.

Key words: internet chatting, interpersonal relation, speech accommodation